

전남 동부권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황당”

광양경제청·여수항만청 업무협조 안돼 같은날 개최

초청도 않고 홍보도 없이 현안사업 그들만의 브리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 해양항만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날을 잡은데다 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아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경제청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광양경제청 주관의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골약동사무소를 찾은 주민들은 1시간 전부터 또 다른 여수 항만청의 주민설명회가 공식 주민 초청 없이 열리고 있어 황당해 했다.

설명회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 사업추진 인·허가 기관이 하게 돼 있다”면서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연락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민참석을 유도하는게 예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단장은 “양 기관의 업무 비협조가 빚어낸 전이행정의 결과물”이라면서 “황급사단 조성 사전환경

행위에 화가났다”며 양 기관을 짜파 아비난했다. 한편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은 광양항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수 항만청과 광양시가 2005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광양항에 세계 최대 ‘컨 선박’ 취항

축구장 5배 크기 ‘에바 머스크호’ 유럽 등 주 1회 운항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은 지난 10일 광양항 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에바 머스크호’ 취항 기념행사를 가졌다. ‘에바 머스크호’(총톤수 17만794t)는 축구장 5배 크기인 총길이 39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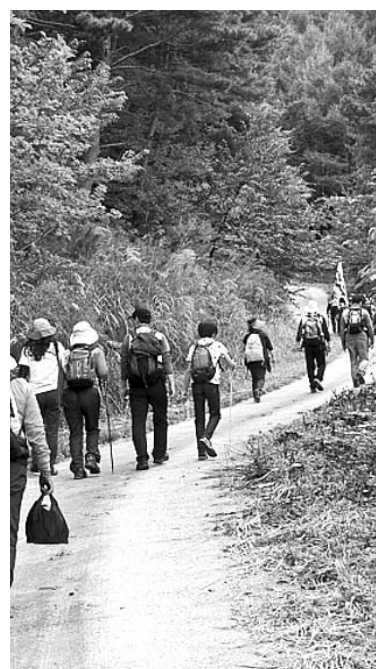
진해운 초대형 선박이 이미 기항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수심(15~20m) 확보 등 자연여건이 대형 선박의 기항지로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둘레길 아시나요

구례 산동면 밤재~토지면 운조루 51km 개통

지리산 주위를 환형(環形)으로 연결하는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 가운데 구례구간이 개통된다. 구례군은 녹색사업단의 녹색복권 기금 4억94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지리산 주변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연결했다.

내 및 편의제공을 위한 지리산 둘레길 방문자 안내센터를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준공전에는 임시로 구례군 실내체육관(061-782-0850)에서 둘레길을 안내한다. ‘지리산 둘레길’은 (사)술금이 녹색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환형으로 연결하는 장거리 도보길로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100여개 마을에 걸쳐 있으며, 총 길이는 300km에 이른다. 둘레길은 ▲보전중심 ▲안전중심 ▲경관중심 ▲자원중심



청, 지리산권 5개 시·군은 13일 오전 10시 경남 하동군 적량면 구 산화초등학교에서 지리산둘레길 2차 개통식을 갖는다.

여수 연등천에 은어가 돌아왔어요

오염천서 생태천 변모

약취가 풍기던 여수시내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변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건천화 예방사업과 오·폐수 차단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등천에 은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천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어도를 비롯해 생태블록을 설치하고 수생식물인 갯버들, 참모, 물억새를 심었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매일 1만2000m를 저장시켜 방류하는 한편 지난 2007년 미평 수원지에서 둔덕동 석교까지 1.8km 관로를 매설해 맑은 우수를 방류, 연등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했다.

전주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만든다

전통문화 살려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본격 추진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국제 슬로시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와 한국 슬로시티본부는 최근 전주 공예품전시관 특별무대에서 국제 슬로시티 선포식을 갖고 국제 슬로시티 정신과 비전을 담은 국제 슬로시티 인프라와 콘텐츠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옥마을을 국제적 슬로시티로 만들기 위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특화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창조적 마을 공동체사업 ▲홍보마케팅 체계구축 등 5대 전략 20개 과제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설공연장 운영, 한스타일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슬로시티 인프라와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광객 보호권 확보 및 골목마을 만들기 사업 등 한옥마을 도시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국제 슬로시티 실현을 위한 콘텐츠를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투자 촉진 서울서 국제포럼

내달 1일 개발 방향 등 논의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6월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동북 아시아와 새만금’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새만금 개발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인을 듣는다.

정 지역장을 지낸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선임 상담가가 기초 발제를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 기지로서 새만금발전전략’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한다. 또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인 트러스트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수석 부회장이 ‘글로벌 금융상황과 새만금의 국제적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새만금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로서 새만금(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 등도 논의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역이 되려면 비자녀 영주권, 외환 거래 문 등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내부개발이 진행되는 새만금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악의 혼 되살리며 남원풍류 재현

시립국악단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서 상설 공연

국악의 멋과 흥이 되살아나는 교방청(敎坊廳) 공연이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에서 펼쳐진다. 교방청 상설공연은 춘향가 중 사랑가과 임채창, 살풀이, 춘향무, 검무, 대금산조 등 전통 교방문화를 재현하는 공연으로 관광객이 소리·춤을 따라하는 어울림 마당도 함께 진행된다.

장인 남원의 풍류를 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은 고려 때부터 교방이 설치돼 기녀들이 창(唱)과 무(舞)를 담당해 오다 일제강점기 해체된 후 민간조직인 권번(1921년)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해방 후 국악동호회(1945년), 국악원(1950년)이 주도해 국악 예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북농기원, 봉지용 느타리버섯 신품종 개발

봉지재배용 느타리버섯 신품종이 개발돼 전북지역 느타리버섯 농가들의 생산력 강화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6년부터 6년간의 연구 끝에 봉지재배용 느타리버섯 ‘아울’을 개발, 품종 출원

했다. 신품종 버섯은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맛이 우수하고 씹힘성이 좋아 요리에 적합하다. 또 재배 측면에서도 생육온도가 기존 품종보다 2~3도 가 낮고, 재배기간도 짧으며, 유효경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느타리버섯 농가들은 봉지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 고추영농조합법인 등 사회적 기업 지정

순창군이 기업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창군은 사회적기업 5개소를 지정, 4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는 배이삭영농조합법인, 두레전축, 아미산향토산업 3개소, 올해는 그린월드, 순창고추영농조합법인 2개소

지정으로 총 5개소가 지정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 지역경제과(063-650-131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 브리핑

군산시, 군산대와 ‘플로팅 건축’ 연구개발 협약

군산시와 군산대학교는 12일 수(水)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 건축(floating architecture)’ 설계기술 개발사업의 상호협력 및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군산대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관련기술 공모에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5

년 동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3억원 규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양기관 관련 연구개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사업화에 대한 상호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특성화된 건축기술 혁신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 구축

정읍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축, 12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홍보, 식품위생분야 등 5개반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전통시장,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과 대책, 이행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TF팀은 오는 9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첫 해외투자 유치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첫번째 해외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12일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고구마식품 제조업체인 페스티바로(Festivalo)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만㎡의 부지에 1300만달러(약 143억원)를 들여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며 약 20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게 된다.

김제경찰, 총기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김제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받는다는 총포소지 허가자에 대해서도 일제 준비를 실시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총기류·폭발물·도검·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조용식 서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소지, 은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본부장 김동호